

나주 안성현 현대음악제 '위로'

〈동요 '엄마야 누나야' 작곡자〉

무지크바움 10~18일 개최
나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려
안성현 재조명·추모 행사로
멘델스존·쇼팽 음악도 연주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 그것도 많은 이들이에게 생소한 '현대음악'을 타이틀로 걸고 음악 축제를 여는 것은 쉽게 업무가 나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인구 10만명의 작은 도시라면 말이다.

현대음악은 보통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곡된 곡들을 말한다. 인구 13만명의 독일 다름슈타트는 현대음악의 메카로 꼽힌다. 2년마다 열리는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는 전 세계 작곡가들의 혁신적 음악이 초연되는 자리다.

2004년 작은 음악동아리로 시작한 (사)무지크바움(대표 조기홍)은 '엄마야 누나야', '부용산'의 나주 출신 작곡가 안성현(1920~2006)을 주제로 한 창작 음악 작품 발표회를 꾸준히 열어왔다. 또 하우스 콘서트, 나주학생운동 현정음악회 등을 열어 클래식 음악 씨앗을 뿌렸고 지난 2007년 처음 나주에서 현대음악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4회까지 진행되다 재정적 문제로 잠시 중단됐던 음악회는 지난해 '나주 안성현 현대음악제'로 다시 부활했고, 올해 6회 행사를 치른다.

오는 10일~18일까지 나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리는 올해 음악회 주제는 '위로'다. 특히 올해는 나주 문화콘텐츠 발굴 차원에서 안성현을 재조명하고 추모하는 음악제로 꾸몄다. 또 전체를 현대음악 작품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현대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바로크 음악과 멘델스존, 쇼팽 등 친숙한 작곡가의 음악도 연주하며 재즈 연주자도 초청, 접근성을 높였다.

첫 공연은 10일 오후 7시30분 안성현 연주회에서 열린다. '안성현을 추모하며'를 주제로 열리는 공연에는 첼리스트 황윤정(코리안첼비오케스트라 단원)과 피



듀오 '필리아'



션 팬트랜드



마누엘 웨이안드



줄리안 쇼어



임재홍

아니스트 모니카 카타로시(이탈리아 게디니 음악원 교수)로 구성된 '듀오 필리아'가 참여한다. 레퍼토리는 쇼팽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작품 65'를 비롯해 헨리 듀티록스의 '세계의 전주곡' 등 현대음악이다.

13일(오후 7시30분 나주문예회관)에는 코리안첼비오케스트라(옛 서울바로크합주단) 8중주단이 무대에 오른다. 김선철(무지크바움 상임작곡가) 곡 현악 8중주를 위한 '안성현을 기리며'와 소스타코비치의 '현악 8중주를 위한 두개의 피스'와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 작품 20'을 함께 연주한다. 임재홍·김성철·윤운정(코리안첼비오케스트라 단원)과 피

재운(비올라), 김용식·김창현(첼로)씨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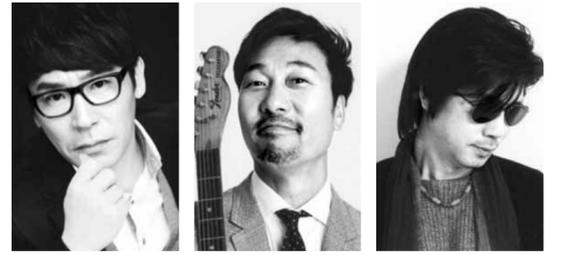
14일(오후 7시30분 나주문예회관)에는 '뉴욕 줄리안 쇼어 재즈트리오와 그의 친구들' 공연이 열린다. 줄리안 쇼어(피아노), 션 팬트랜드(베이스), 마누엘 웨이안드(드럼)와 보컬의 쉰니킴, 바이올리니스트 김홍연, 첼리스트 황윤정이 함께 하는 무대로 '부용산 주제에 의한 연주곡'을 포함, 다양한 재즈 음악을 들려준다.

15일 안성현음악홀에서는 '젊은 작곡가들 만나다'를 주제로 성용원 곡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부용산 아라리', 김선철 곡 첼로 독주를 위한 '엄마야 누나야 주제에 의한 10 변주곡'이 연주된다. 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정성엽 곡 무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그리고 판소리를 위한 '죽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가 연주된다.

18일 오후 7시 한국농어촌공사 아트홀에서는 '바로크 음악에서 만나는 안성현 추모 음악의 밤'이 열린다. 바로크 바이올린 최운정, 바로크 첼로 강지연, 첼발로 황은아, 리코더 조진희 등이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김선철 곡 리코더 사중주 '안성현을 기리며 II'를 비롯해 바흐의 '조곡 2번', 파헬렐의 '캐논',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텔레만의 곡들을 연주한다. 전석 무료. 문의 010-6422-19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관우

이문세

이치현

광주문예회관 25주년 '빅 콘서트'

7일 대극장 ... 시향 연주·조관우·이문세 등 출연

무료 진행·먹거리도 준비

지난 1991년 10월21일 대극장을 개관하며 문을 연 광주문예회관에서는 이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예향 광주' 한축으로 자리잡았다. 조관우, 이문세 등 유명가수가 문예회관 개관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광주문예회관이 7일 오후 7시 대극장에서 25주년 기념 '빅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등이 참여하는 1부와 대중음악을 들려주는 2부로 꾸며진다.

1부는 대북팀 '전통타악 아작'의 타고 공연을 시작으로 시립교향악단이 존 윌리엄스의 '스타워즈', 모리코네의 '러브 어페어' 등을 연주한다. 이어 소프라노

신델라씨는 '베싸메 무쵸', '사랑 밖에 난 몰라' 등을 부른다.

2부는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가수 조관우가 '꽃밭에서', '눈', '사랑했으므로'를, 이문세가 '조조할인', '광화문연가', '깊은 밤을 날아서' 등 히트곡을 선사한다. '이치현과 벗님들'은 '이별의 미소', '집시여인', '다가가기 전에' 등을 부를 예정이다. 또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이허림씨는 비발디 '태풍', 마이클 잭슨 'Smooth Criminal', 진도아리랑을 무대에 올린다.

광장 한편에는 수제 맥주 등이 준비돼 먹거리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공연 실황은 광장에 설치된 대형 LED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악가 사운정 귀국 독창회

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성악가 사운정(사진)씨는 본격적으로 노래를 공부하며 늘 마음에 품었던 게 있었다. 이탈리아 유학이었다. 웬지 이탈리아 음악이 마음에 와 닿았고, 좋아하는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나라이기도 해서다.

대학 졸업 후 '꿈'처럼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8년만에 돌아온 사씨가 귀국 독창회를 갖는다. 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공연 레퍼토리는 2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스페인 작곡가 투리나의 '노래 형식에 의한 시', 라흐마니노프의 '꿈'과 '슬프게도 나는 사랑을 빼앗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친구 프리즈' 중 '이 작은 꽃을'을 들려준다.

2부는 그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꾸몄다. 토스티의 연가곡 '나를 내버려 두오', 푸치니의 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 '나홀로 버려졌네', 로시니의 연가곡 '베네치아의 곤돌라 경주' 등이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사씨는 이탈리아 노바라 귀도 칸텔리 국립음악원 석사 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 박사 과정을 마쳤다. 또 밀라노 시립음악원 음악코치 과정, 아레나 아카데미 합창지휘과정도 마쳤다. 이탈리아 노바라 극장 오페라 무대를 비롯해 스위스 등에서 활동했으며 이탈리아 리라볼로 카니베제 콩쿠르에서 2위 입상했다.

사씨는 "이탈리아 음악들의 느낌과 누앙스를 잘 살릴 것같아 레퍼토리를 선정했다"며 "유학을 떠난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 등 국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피아노 반주는 나원진(호남신학대 겸임교수)씨가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눈'(NOON) 제 6호 발행

'포스트-온라인' 주제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발행하는 현대미술정론지 '눈'(NOON) 제 6호가 나왔다.

'포스트-온라인'을 주제로 출간된 이번 호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생산하는 현상과 흐름에 대

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을 모았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발행인의 글을 비롯해 서동진 편집위원장의 편집노트, 주제글 6편, 특집주제에 대한 앙케이트, 마리아 린드 예술감독의 2016광주비엔날레 리뷰로 구성됐다.

주제를 필진으로는 마크 피셔(런던 골



화(시각문화 연구자), 메디 벨라 카셈(저술가), 강수미(동덕여대 회화과 서양미술

이론 교수) 등이 참여했다.

그밖에 '미적-윤리적 장치로서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질문지' 앙케이트에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베른하르트 제렉스(ZKM 수석 큐레이터) 등 국내외 10인이 참여했다.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되며 광주비엔날레 소품몰(mail.gwangjubennale.org)에서 구매 가능하다. 판매가 1만5000원. 문의 062-608-422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m²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구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황동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